

# 조선 후기 화훼의 성행과 정원조영문화

한소영\* · 신현돈\*\*

\*서울연구원 · \*\*서안알앤디 디자인(주)

## I. 서론

우리나라 조선 후기, 그 중에서도 18·19세기는 매우 역동적인 시기였다. 이전 시기 이념 중심의 사고가 해체되고 실학이 유행하면서, 이 시기 지식인들은 추상적이고 일상에 큰 관련이 없는 관념적 철학 대신 일상의 소소한 사물들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했다(정민, 2004). 또한 도회지 밖의 산수가 아름다운 호젓한 곳에 삶의 공간을 두는 것이 여유 있는 삶의 공간을 꾸리는 최우선이라고 여겨졌던 기존의 인식이 이 시기에 들어 달라지기 시작했다. 도회지 조경이 유행하고, 이를 반영하여 건축과 조경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지식인이 증가했다<sup>1)</sup>. 그들은 문예작품을 통해 조경론을 전개하고, 개성과 미의식을 표현했다. 따라서 이 시기 주거 및 조경 문화는 기존과 확연히 구분 지을 수 있다. 특히 원예문화의 극적인 확대가 대표적인 특성으로 나타났다. 문인층들 사이에서 각종 화훼에 대한 수요 및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정원 경영에 많은 관심을 쏟던 시기였으며, 화훼 및 분재의 유통이 크게 성행했다(정민, 2007; 송희경, 2009). 우리나라 18·19세기는 한편으로 경제 부흥기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때 새로운 정원 문화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조경학 분야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간과한 것은 아니다. 다만 선행된 몇 가지 연구들이 대부분 당시 유행하였던 화훼의 종류와 의미에 치중한 경향이 있다. 더불어 이 시기는 꽃을 재배하는 방법과 감상을 위한 서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따라서 꽃은 회화에도 중요한 소재가 되어 관련된 많은 작품들이 남겨졌다. 그러다보니 타 분야에서 선행된 연구들의 경우에도 회화를 중심으로 본 연구와 소품문 및 서적을 중심으로 분석된 연구가 분절되어 있는 경향을 띠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문학과 미술사학, 동양학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선 후기 정원문화에 대한 논의들을 화훼 및 분재의 성행을 중심으로 배경에서부터 파급효과까지 전반적인 궤적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조경학적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 II. 조선 후기 화훼의 유행

중국 명대 이후 조원술이 급속도로 발전함과 동시에 원예제

배가 유행하면서 주거공간 내부나 실내에 배치된 화훼와 분재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꽃을 재배하는 방법과 감상을 위한 서적이 발행되었고, 이는 우리나라에 바로 수입되어 지식인층의 취미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값비싼 도자기로 만든 화분에 심겨있는 관목이나 분재는 마당의 구성물이었고, 개인뿐 아니라 방문객들과의 모임에서 흥을 돋우는 완상물이 되기도 했다.

17세기 후반부터는 홍만선(洪萬選, 1643-1715)의 『산림경제(山林經濟)』를 비롯한 조경에 관한 서적들이 쏟아져 나왔다(정동오, 1986). 조선 전기와 이 시기 지식인층들의 '꽃'에 대한 전반적 인식 변화의 가장 큰 차이를 살펴보면, 조선 전기에는 사물에 철리를 투영한 관물론적 자세를 표명하였다면, 조선 후기에는 '꽃'이라는 사물 그 자체의 아름다움에 집중하였다는데 있다(정민, 2007; 송희경, 2009). 강세황(姜世晃, 1712~1791)은 이 시기에 초목분재의 아름다움에 대해 저술하였고, 서유구(徐有集, 1764~1845)는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이운지(怡雲志)」에서 실내의 다른 소품들과 어울리게 꽃과 화분을 놓아야 하는 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한소영과 조경진, 2011).

화훼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자연스레 이를 공급하는 화훼 상인들이 생겨났다. 필운대(彌雲臺) 아래 누각동(樓閣洞)과 도화동(桃花洞) 청풍계(淸風溪) 등에는 아전으로 있다가 물러난 뒤 분재나 화훼 재배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기이한 등걸에 접붙인 매화나 괴석에 뿌리를 내린 소나무 분재, 층층이 꼬아 올려 높은 곳에 열매가 달리게 한 층석류(層石榴), 화분 하나에 서너 가지 빛깔의 꽃을 피운 국화 등이 특히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정민, 2007). 관련하여 태평성시도(太平城市圖)에는 수많은 화훼와 분재를 파는 가게가 묘사되어 있다(이수미, 2004)<sup>2)</sup>.

화훼업이 성장하면서 기술도 발전하였다. 유박(柳璞)과 같은 전문 원예업자도 출현하고, 국화품종 개량의 전문가도 등장한다(김용태, 2008). 매화를 즐기는 전통적인 취미는 더욱 활발해졌다. 겨울밤에 얼음덩이를 잘라내어 그 속에 촛불을 두고 매화를 감상하는 빙등조빈연(氷燈照賓宴)이나 그림자를 이용하여 국화를 감상하는 국영법(菊影法)과 같이 다양한 감상법도 등장하였다(신익철, 2008). 화단에서 꽃을 키우지 않고 화분에서 재배하여 감상하고, 꽃병에 꽂아놓고 완상하는 분경법(盆景法)과 병화

법(瓶花法)이 널리 활용했다. 이는 조선 후기에 화훼 감상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문화적 트렌드로 확립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 III. 조선 후기 정원조영문화

조선 후기 화훼의 유행과 정원조영문화 성행과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정원 및 원림 조영문화의 성행이 화훼의 성행을 이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화훼의 성행이 정원조영이 유행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정원의 전체적인 형태보다는 화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예술적 형태'를 추구하기 보다는 조원자(造園者) 자신의 화훼에 대한 만족을 위한 것이 더욱 컸다. 여기에서 개개인의 취미와 추구하는 문화적 이상향에 따라 소소한 요소들이 달라졌다. 여기에는 조선 후기 당시 문인들이 한양이나 그 근교에 마련한 별장과 원림에서 향을 피우고 차를 마시면서 시문, 서화와 음악을 즐기며, 서책, 분재, 수석 등을 감상하는 것이 크게 유행하였다. 이러한 문화현상은 특히 정원아회도(庭園雅會圖)<sup>3)</sup>를 통해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18세기 이전의 회집도에서는 거의 작품화되지 않았던 자택의 아름다운 뜰을 배경으로 제작된 조선 후기의 독특한 시각물이다(송희경, 2004). 조선 후기 화훼 및 정원 관련 취미와 더불어 다양한 문화현상은 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에 반영되어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서울의 상층 사대부들 사이에서 향유된 각종 취미는 그들이 지닌 문화적 역량의 힘을 입어 일반 사람의 그것에 비해 더 많이 뚜렷하게 노출되고 있다. 취미의 향유가 신분과 지역, 경제적 수준과 사유의 개방성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화훼와 정원조영의 성행을 조선 후기의 보편적 현상이었다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다(안대회, 2012). 특히 화훼 수집과 정원조영은 지식인들이 향유하는 고급 문화였기에 이들의 관념과 철학이 많이 투영되어 있어, 공간조영의 실제적 문제와 괴리가 있는 경우도 많다. 당시 다양한 서적에서 당대 최신 과학기술과 함께 이상적인 정원 및 주거공간 조성방법에 대한 소개하려고 노력했지만,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미신에 가까운 것도 많다<sup>4)</sup>.

조선 후기 정원조영문화에 있어 또 다른 특징으로 의원(意園), 즉, 상상 속의 정원을 꾸며 글로 남기는 일이 유행처럼 번졌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당시 상상의 정원들은 현실계와 관념적·언어적 구조물의 관계를 실제와 그림자의 관계로 파악하고, 언어적 구조물의 세계를 현실계로부터 독립된 자족적 공간으로 사고한다(안대회, 2004). 이들에서는 이상향의 원형인 '무릉도원'을 <園>의 형태로 재현하면서, 소소한 관심분야와 가치 공간을 나타낸 개인적인 공간을 가상으로 꾸며보는 내용의 문학적 성향이 나타났다. 더불어 자신의 가치관을 극대화시켜 일부 공간이었던 서재의 의미를 확장시키기도 하였다. '이상향의 공간 설정'과 '공간인식의 확장' 등에 있어서, 책이 키워드가 되었던

것이다(최원경, 2007). 결국 정원 조영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정신적 고고함과 연계하고자 하는데 있었으며, 여기서 화훼는 이들을 나타내는 상징적 근거들이 된다. 이는 정원을 서재의 연장이라고 생각한 점에서도 알 수 있는데, 결국 정원이 하나의 서재라면 정원을 구성하는 갖가지 꽃과 나무들은 서재를 구성하는 책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sup>5)</sup>.

### IV. 결어

조선 후기 다양한 원림화(園林畵)와 아회도(雅會圖), 풍속도(風俗圖) 등에 그려진 화훼와 분재는 서울에 기거하는 문인사대부의 정원조성과 원예 애호 풍조를 그대로 반영한 문인문화의 한 현상을 반영한다. 당시의 사대부들은 주거지 선택에 관심을 집중하였고, 공간의 배치와 그 속에서의 생활 조경과 조경요소를 심도 있게 논하였다. 여기서 화훼와 분재는 가장 중요한 소재 중 하나였다.

조선 후기 정원조영은 지식인들의 예술적 취미와 깊이 연계되어, 현실과 이상의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다. 따라서 한편으로 공간적 완결성에 구애받지 않는 우리나라 정원 특성의 대표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당시의 문화 및 사회사를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거울이 되기도 한다.

- 주 1. 이러한 현상에 대한 관심이 표명된 논문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최기숙, 2003, "도시, 욕망, 환멸: 18·19세기 '서울'의 발견," 『고전문학연구(23)』, pp.421-453.
- 주 2. 태평성시도에는 갖가지 진귀한 화분에 담긴 꽃나무들이 상점 판매 위에 늘어 서 있고, 그 가운데 가게 주인이 앉아 분을 팔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건물의 안쪽에는 아직 선보이지 않은 소나무, 분경 등이 나열되어 있고, 한창 꽃 화분이 팔리고 있는 듯 시동들은 매화분을 들고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다.
- 주 3. 조선 후기 정원아회도를 밀도 있게 연구한 송희경은 조선 후기(1700~1850) 문인들이 여러 목적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모임을 개최하였다고 하면서 특히 18세기에 들어서는 조선 전반기에 걸쳐 지속되었던 사대부 관료의 공식적 모임과는 다른, 즉흥적이고 자발적이고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아회가 전개되었다고 이야기 한다. 여기서 아회란 상대하고 형식적이며 출사를 기념하는 태평연음의 공회(公會)와는 구별되는, 시문풍류에 치중한 비공식적인 사회(私會)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아회는 문인들이 주도하여 형성된 문화 현상이었으므로 조선 후기 정원아회도를 통하여 정원 모임의 연원, 성격, 모임장면과 시대적 양식과 형식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18세기 전반기의 정원아회도에서는 건과포 차림의 실물상이 간략하게 묘사되고, 정원배경은 간략화 되었으나, 18세기 후반의 정원아회도에서는 정원 묘사가 더욱 강조되기 시작했다. 특히 방형연지와 갖가지 나무와 꽃이 화사한 담채로 구사되어 있다.
- 주 4. 가령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에 소개된 우물 자리 판별법은 낭만적이기까지 하다. "우선 대야에 물을 떠 곳곳에 놓으라 한다. 물에 비친 밤하늘 별이 가장 크고 밝은 곳이 샘물 자리라고 한다. 약간 더 그럴듯해 보이는 방법으로 땅바닥에 대야를 얹어 놓았을 때 이를 맺히는 곳을 택하는 것이 있다(안대회, 2005)."
- 주 5. 다양한 의원기들에서 쓰여진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의 정원에서 공통적으로 배치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서재의 배치이다. 다음이 조경으로, 명화이해(名花異卉)와 조경수(造景樹)를 매우 구체적으로 나열한다. 마지막으로 벗이다. 정원의 조성 의도로서 벗과의 사귀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 마지막으로 서책을 제외한 청공

(淸供)과 고동서화(古董書畫)를 비롯한 속되지 않은 물건들의 배치이다. 이렇게 설정된 가상공간은 작가의 생활환경과 경제력 정도, 문화적인 배경, 가치관 등을 드러내 준다. 평소 즐기는 유희 문화의 종류와 범위, 공간의 스케일과 그 안에 배치된 사물들은 그 사람의 생활력 정도와 문화 척도를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공간이 부각되어서 설정되었는가'라는 문제로, 작가의 주된 관심과 시대의 문화적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 가상공간을 설정할 때, '園'에서 '서재'의 의미가 확장, 부여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최원경, 2007).

### 참고문헌

1. 김용태(2008) 19세기 조선 한시사의 탐색. 돌베개.
2. 송희경(2004) 조선 후기 아회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 송희경(2009) 정원 속의 작은 정원: 조선 후기 盆景에호와 園林畵의 분경. 동방학 (17): 401-440.
4. 신익철(2008) 茶山과 다산학단의 菊影詩 창작과 그 의미: 원경도 문학의 수용 양상과 관련하여. 한국실학연구 (16): 129-159.
5. 안대회(2004) 18, 19세기의 주거문화와 상상의 정원 -조선 후기 산문가의 기문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97): 111-138.
6. 안대회(2005) 산수간에 집을 짓고. 서울: 돌베개.
7. 안대회(2007) 조선 후기 사대부(士大夫)의 집과 삶과 기록. 한문학보 (17): 3-26.
8. 안대회(2012) 조선 후기 취미생활과 문화현상. 한국문화 (60): 65-96.
9. 이수미(2004) <태평성시도>와 조선 후기 상업공간의 묘사. 미술사와 시각문화 (3): 38-67.
10. 정동오(1986) 한국의 정원. 서울: 민음사.
11. 정민(2004) 1미쳐야 미친다. 서울: 푸른역사.
12. 정민(2007)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 서울: 휴머니스트.
13. 최기숙(2003) 도시, 욕망, 환멸: 18·19세기 '서울'의 발견. 고전문학연구 (23): 421-453.
14. 최원경(2007) 조선 후기 문학 속에 나타난 가상의 공간과 미메시스. 한문학보 (17): 451-471.
15. 한소영, 조경진(2011)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의원(意園, 상상의 정원)의 조경학적 함의. 한국조경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pp.119-124.